

제6회 람사조약 체결국 회의 결과

要 旨

제6회 람사조약 체결국 회의가 1996년 3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벤'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 있어서, 일본 및 오스트레일리아 양국정부의 공동제안에 의한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지역의 습지 넷-워크(Net-Work)구축에 관한 결의(브리스벤 성명)」가 채택되었으며, 그 이외 조약의 중기계획목표와 습지의 등록기준으로서 새로이 '어류에 관한 기준' 등이 채택되었다.

한 상 훈

북해도 대학 농학부 응용 동식물 교실

한국자연환경정보&연구센터 대표연구원

1. 제6회 체결국 회의의 개요

- 1)일정:1996년 3월 19일(화)-27일(수)
- 2)장소: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벤시(퀸-즈랜드주)
- 3)참가:체약국 91개국 270명
비체약국 32개국 57명
국제기관 12 22명
그 외 시민단체(NGO), 개인, 지방자치단체
(사무국, 보도기관포함)등 합계 1,190명

2. 주요 결과

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있어서 조약의 이행사항의 보고, 분과회의 기술적인 사항의 검토등이 행하여졌으며, 최종일의 차기체약회의까지의 예산, 사업계획등이 승인되었다. 그 이외에, 전부 23개 조항의 결의(Resolution)와 18개의 권고(Recommendation)가 채택되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어류에 관한 중요한 습지의 동정을 위한 기준」에 관한 결의

람사조약의 등록습지의 동정기준으로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던

- 1.대표적/독특한 습지와 기준
- 2.동식물에 근거한 기준
- 3.수조류의 개체수에 근거한 기준 등에 첨가하여,새로이「어류의 서식상황등에 근거한 기준」을 채택한 결의.

당초에는, 「지속가능한 어업에 근거한 기준」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으나, 그 판단이 곤란한 등의 이유로 어업에 관한 부분은 삭제되어 「어류에 관한 기준」으로 되었다.

2)「람사조약 25주년 기념성명」과 「전략계획 1997-2002」에 관한 결의

25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서 상설위원회가 작성한 조약의 중기계획목표(「전략계획1997-2002」)를 승인함과 동시에, 그

내용을 지지하는 「25주년 기념성명」의 채택등을 구한 결의. 전략계획에 있어서는, 조약이행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행동 계획이 일반적인 목표하에 정리되어 있지만, 2002년까지는 체약국수를 120개국으로 하는 등, 구체적인 목표도 표시되어 있다.

더우기, 호주의 聲明에 의해, 이 전략계획의 이행을 목적으로한 예산이나 사업계획을 각국이 발표하였다.

3)「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지역에 있어서 습지 넷-워크추축」에 관한 권고(브리스벤 성명)

전일 발표되었던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지역에 있어서 도요새/물떼새류에 관한 습지 넷-워크」에 대하여, 지역내 각국의 참가를 요청함과 동시에 다른 수조류의 종류군에 관하여도 이러한 넷-워크의 구축을 검토할 것등을 요구한 권고. 이 권고안은 일본과 호주가 공동으로 제안한 것이지만, 「브리스벤 성명」으로서 개최지의 명칭을 사용한 유일한 문서로서 이번 회의의 중심권고로서 위치하였다.

3. 그 외

- 1)次回(제7회)체약국회의는 1999년에 중앙아메리카의 코스타리카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 2)차회체약국회의까지의 조약운영에 책임을 지닌 「상설위원회」의 아시아지역대표로서는 말레이시아가, 그 대리로서는 이란이 선출되었다. 또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서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부터 검토를 행하는 「과학기술 리뷰-패널(STRP)」의 아시아지역대표에는 일본의 (財)자연환경연구센터의 코다 마코토박사가 선출되었다.
- 3)회의기간중,아시아지역의 체약국/비체약국이 모인 비공식 회합이 3회에 걸쳐 개최되고, 각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에 의해 각지의 등록습지의 상황에 관한 보고등이 있었다.

<참고>
-람사조약에 관하여
정식명칭은 「특히」수조류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와 그 곳에 서식, 생육하는 동식물의 보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체약국은 영역내에 있는 습지를 지정하여, 조약사무국에 등록함과 동시에 그 보전의 촉진을 위한 각 체약국이 하여야 할 조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1971년 이란의 람살시에서 채택되어, 1975년 부터 발효, 일본은 1980년에 가맹,(한국은 가맹하기로 정부가 1995년 방침을 세움) 이번 체약국회의의 개최시점에 있어서, 체약국은 92개국(3월 29일 발효하는 알바니아, 5월 18일 발효하는 자일 포함), 등록습지수는 775개소.

<참고자료:주요 결의 및 권고의 개요>

「1.어류에 관한 중요습지동정을 위한 특별기준에 관한 결의개요」

어류에 관한 특별기준 및 그의 적용에 대한 지침을 채택하고, 몬트리올 회의의 권고 4.2에서 채택된 습지계재기준에 추가 함.

『특별기준』

다음의 요건중에 한 가지라도 충족시키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간주함.

- a)종래의 어류의 아종, 종, 과에 있어 상당한 비율을 보유하며, 습지의 이익 및 가치를 대표하는 생활사의 일단계, 상호간 영향하고 있는 종 또는 개체수를 유지하고 있는 습지일 것. (가이드라인)
 - 1)그 지방고유의 종의 비율이 등록습지를 구별하는 하나의 지표가 됨. 습지의 어류상의 최소한10%가 고유종일 경우, 그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됨.
 - 2)절멸의 위험성이 있는 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도 중요습지의 판단기준이지만, 이것은 기존 기준2에 포함되고 있다.
 - 3)우산종 또는 키-스톤종으로서 불리우는 지표종」은,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중요한 「지표종」이 서식하는 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이다.
- b)어류의 채식지 또는 번식지로서 중요하고, 습지 및 다른 장소의 어류자원이 의존하는 회유로서 이용되는 습지일 것.

「2.25주년 기념성명 및 1997-2002 전략계획에 대한 결의 개요」

체약국 회의는

- 1) 「람사조약 25주년 기념성명」을 채택한다.
- 2) 「전략계획 1997-2002」를 승인한다.
- 3) 「람사등록습지의 모니터링수속」을 「람사등록습지의 관리 지도수속」으로 이름을 개칭.
- 4) 사무국운영계획 1997-1999를 채택한다.

-람사조약 25주년 기념성명개요

- 1) 조약이 발표한 이후 25년간에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고양되고, 또한 조약의 '현명한 이용'의 개념이 확산하여, 많은 정부가 습지보전 및 현명한 이용의 전개를 시작하였다.
- 2) 25주년을 기념하여, 1997-2002년의 전략계획을 채택한다.
- 3) 조약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장래 직면할 주요 환경문제를 분명히 할 것에 대하여, 실로 유익한 역할을 담당할 것을 기대한다.
- 4) 습지보전, 행동계획 및 전략계획의 수행의 성공을 위하여서는, 모니터링이나 현지조사를 행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5) 람사의 습지의 정의에 포함되는 해양 및 연안지역에 대하여서는 더 더욱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6) 조약은 관련조직(다른 환경관련조약, NGO 등)과의 제휴를 강화한다. 또한, 여러사항, 단계에 있어서 협력체제를 취할 필요가 있다.

-전략계획 1997-2002의 주요목적

- 1) 전지역에 있어서의 가맹국의 증가(2002년까지 120개국으로 함)
- 2) 람사의 현명한 이용 가이드 라인을 실행, 발전시키는 것에 따른 습지의 현명한 이용 달성.
- 3) 세계의 전 인류에게 있어, 습지의 가치와 기능에 대하여 보급과 개발(啓發)을 행함
- 4) 습지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달성하기 위한 각 체약국의 관계기관의 보강.
- 5) 전체 등록습지의 보전의 확보
- 6) 습지목록작성
- 7) 다른 조약이나 기관(정부, 비정부 관계없이)과 협력하여,

국제협력의 촉진 및 자금원조의 활성화.

- 8) 조약에 필요한 제도상의 정비와 자금의 준비

「3.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지역의 이동경로상의 등록 습지의 넷-워크의 구축에 대한 권고(브리스벤성명:일본-호주공동제안)」

체약국회의는,

- 1) 도요새, 물떼새류의 이동경로상의 습지의 넷-워크를 구축한다.
- 2) 「아시아/태평양지역 수조류 보전전략」의 실행을 지원한다.
- 3) 「동아시아-오스트레일리아지역의 도요새, 물떼새류에 관한 습지 넷-워크」에 습지를 추천하는등, 본 넷-워크를 지원한다.
- 4) 지역내의 비체약국에 대하여서도 브리스벤 성명에의 참가를 호소한다.
- 5) 도요새, 물떼새류이외의 수조류의 종류군에 관하여서도 넷-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 6) 보급개발, 연수, 정보교환에 의하여 항구적인 도요새/물떼새류 및 서식지의 보전을 도모한다.

-람사조약의 전망과 방향 및 우리의 각오

최근 지구규모의 환경과괴의 위기감에서 환경보호를 위한 공통적인 인식하에 궁극적으로 지구전체의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적인 환경보전 및 생물종 보호조약 회의가 빈번하게 개최되고 있다. 1982년 부터 신생어로 등장한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슬로건으로 한 '생물다양성조약(1992년)'이 대표적인 예다. 그 외에는 국제연합 환경계획(UNEP), 국제연합 개발계획(UNDP), 이동성 동식물의 종보전을 위한 국제조약(CMS, 일명 '본 조약'), CITES, 국제포경보호조약, 세계유산조약, 양국간 철새보호조약등 다양하게 환경보전과 생물종의 보호를 위하여 국제간의 협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람사 조약은 특히 습지환경과 그 지역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는 생물종의 보호 및 인간생활과의 공존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요구하고 있다.

25주년을 맞이한 금년부터 '어류종의 보호'에 관한 새로운 조항채택과 람사조약의 국제간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개별로 활동하던 국제 수금류 사무국, 아시아 습지사무국 및 아메리카 습지사무국이 합병하여 국제

습지국으로 새로운 출발은 지금까지의 활동노력의 결과, 이룩된 성과로 지구규모의 환경보전을 위한 최종목표를 향한 보다 구체적인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된다.

이제는 지역, 국가의 환경문제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과 국가, 나아가 지구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주지하여야만 한다. 이러한 환경인식의 보급을 위한 환경교육의 활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우리나라에 있어, 국내외의 협력 및 정보 네트워크의 구축이 시급하며,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의 환경위기 의식향상과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안전한 생활유지를 위한 환경정책이 시행되도록 우리들 자신이 노력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

눈부신 경제적성장을 이룩한 자신이 이제는 환경보호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환경선진국으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하루라도 빨리 국내의 환경 및 관계법률을 정비하여 람사조약체약국의 일원으로 환경보전에 앞장서주기를 요구한다.

*국제 습지환경 보호년표(아울러 일본의 자료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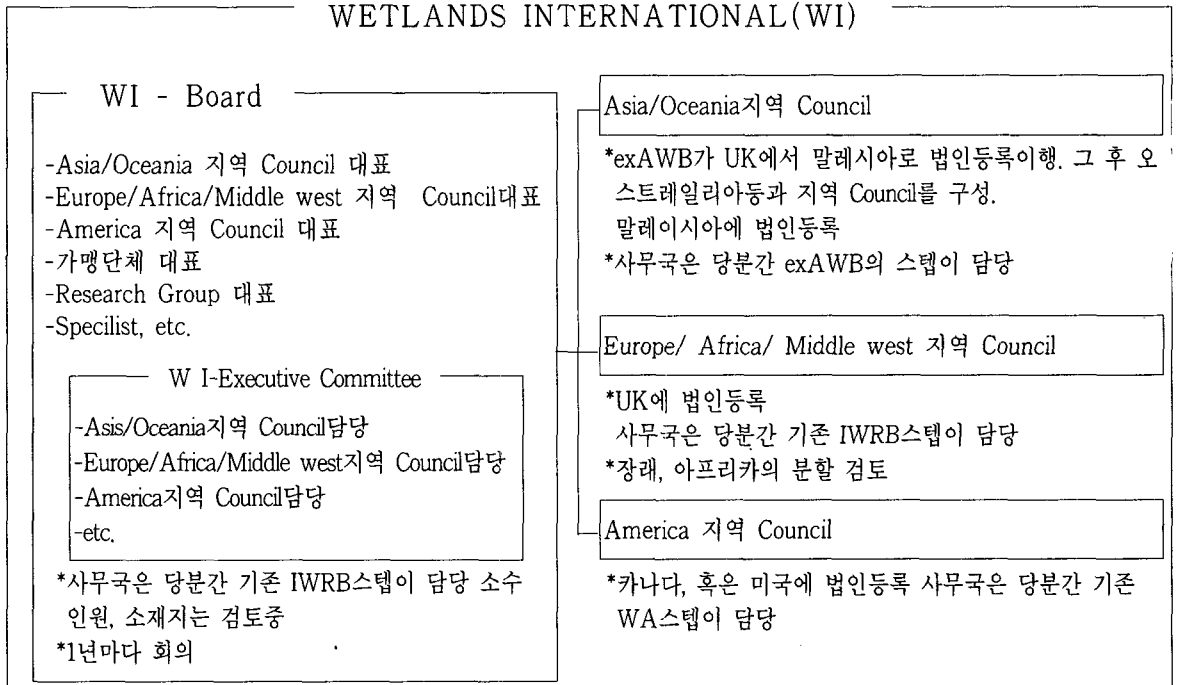
년/월	주요내용
1962년 11월	프랑스 생트 마리 드 라 메르에서 국제자연보호연합(IUCN), 국제조류보호회의(ICBP),국제습지조사국(IWRB)공동 주최로 습지회의 개최
1971년 2월	이란 람사에서 특히 수조류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람사조약)채택
1975년 4월	아이치켄에서 제 1회 「전국 간석(干潟=이하 '갯펄') 심포지움」개최
12월	람사조약발효가맹국은 오스트레일리아,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남아프리카, 이란, 그리스등 7개국
1976년 5월	치바시에서 제2회 「전국갯펄 심포지움」개최
1977년 5월	이사하야시에서 제2회 「전국갯펄심포지움」개최
1980년 6월	일본 람사조약에 가맹, 북해도의 쿠시로 습원을 등록지로서 지정.
10월	일본에 있어서 람사조약 발효
11월	이탈리아 카리아리에서 「제1회 람사조약 체약국회의」개최.
1984년 5월	네덜란드 프로닌헨에서 「제2회 람사조약 체약국회의」개최.

1985년 9월	미야기켄의 이즈누마, 우치누마를 람사조약 등록지로 지정.
1987년 5월	캐나다 레자이나에서 「제3회 람사조약 체약국회의」개최.
1989년 7월	북해도의 쿨차로호수를 람사조약 등록지로 지정.
1989년 9월	IUCN등이 「아시아 습지목록」, IWRB일본위원회가 「일본 습지목록」을 출판. 「국제 갯펄 심포지움 1989/나고야」개최
1990년 6월	스위스 몬트루에서 「제4회 람사조약 체약국회의」개최
1991년 5월	「국제 갯펄 심포지움 1991/이사하야」개최 「일본 습지 네트워크(JAWAN)」설립
12월	북해도의 우도나이호수를 람사조약 등록지로서 지정
1992년 5월	「1992 국제 갯펄 심포지움/동경」개최
9월	WWF일본위원회, 일본자연보호협회, 일본 야조(野鳥)회, JAWAN,지구의 친구(友)-일본 등이 「93습지회의」결성, 뒤에 북해도 자연보호협회도 참가.
10월	「아시아습지 심포지움=오오츠/쿠시로」개최.
1993년 6월	북해도 쿠시로시에서 「제5회 람사조약 체약국회의」개최 북해도 키리타푸습원, 아케시호수, 벵칸베우시습원,치바켄, 야즈 히가타, 이시카화켄,카타노 카모이케, 시가켄,비와호수등 5지역을 새로운 등록지로 지정 「람사 시민단체(NGO) 포럼/쿠시로」개최 WWF 일본위원회가 「습지 심포지움=동경/쿠시로」개최
1994년 11월	이사하야에서 「동북아시아 습지심포지움」개최 쿠시로에서 「동아시아 북태평양 환경포럼 및 수조류의 비행경로 보호 및 중요습지 보전에 관한 심포지움」개최
1995년 9월	쿠시로에서 「동아시아-북태평양 환경포럼 및 수조류 보전 심포지움」개최
10월	말레이시아 새탄 골에서 「습지와 개발에 관한 국제회의」개최 동 기간중 「아시아 습지국 지역평가회」, 「습지와국제조사국이사회」 및 「국제습지조사국/아시아 습지국 /아메리카습지국 합동회의」개최. 합동회의의 결과 새로운 국제습지기구 (WETLANDS INTERNATIONAL)발족 결정 - 1996년 1월을 기점으로 활동 개시.
1996년 3월	호주 브리스벤에서 (제6회 람사조약 체약국회의)개최

#참고자료

〈WETLANDS INTERNATIONAL(WI)의 규모〉

- *1996년 1월 이후 IWRB, AWB, WA가 합체하여 WI로 이행. WI는 UK의 법인으로 등록
- *사무국은 당분간 기존 IWRB의 스텝이 담당
- *3년마다 1회 BOARD MEETING을 개최
- *WI는 3지역 COUNCIL과 지역라이센스 계약을 체결
- *기존 IWRB의 Board멤버는 자동적으로 WI의 Board멤버



INTERNATIONAL COORDINATION UNIT(ICU)

- *WI의 부속기관으로서 설치
- *WI와 지역Council,관계국 기관, 각국, 각 NGO와의 연락 및 조정기관
- *사무국은 당면간 기존 IWRB의 스텝이 담당, 소수인원, 소재지는 검토중

※한국자원환경과학정보연구센터는 극동아시아지역의 환경보전과 생물종의 다양성유지를 위한 보호및 연구활동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되었다. 본 센터는 환경보전과 생물종의 보호에 관하여 조사기획, 자료수집, 정보의 공개 및 제공,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사업을 통한 보전전략을 수립, 행동계획의 실행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국내외의 관계기관의 협력은 20여군데에 이르며, 국제협력적 환경보전 계획의 실행에 있어 국내의 넷-워크구축과 관심있는 분들의 연락을 원한다.

※습지에 관한 참고 자료

한상훈.1995. '습지의 중요성' 자연보전 9월호 자연보호협회

1995.아시아의 자연과 일본. 자연보존12월호